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cedures of Entrance into Early Childhood Teachers College and the Career Progression of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송주연(Ju Yeon Song)¹⁾

조준오(Jun Oh Jo)²⁾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rocedures for entering college, their perception of major areas of satisfaction and career progress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22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Busa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major motivation of entering into college for these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as 'to become an early childhood teacher'. Second, the majority of 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were satisfied with their majors for their aptitude for studying in this area. Third, the most commonly expressed employment preference for such students was that of a public kindergarten teacher due primarily to job security and appropriate rates of pay.

Key Words : 유아교육과 학생(students major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진학(entrance), 진로(career).

I. 서 론

대학 시기는 학업세계에서 직업세계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써 진로선택과 직업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시기이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직업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을

넘어서 자신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자아실현의 의미까지 가지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있어 진로에 대한 결정은 인생발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된다. 그러나 심각한 취업난 속에 청년 실업률은 높아지고 있고 직업은 고도로 전문화 및 다양화되고 있어 학생들이

¹⁾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²⁾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Jun Oh Jo,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San 30, Jangjeon-Dong,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E-mail : vygotsky@empas.com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한 직업선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보고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진로와 취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성경, 2003; 김민정·김봉환, 2007; 오현숙, 2008; 정철영, 1994) 대학은 이제 학문을 위한 학문이념 추구 장소의 기능만이 아닌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봉사기능의 의미를 갖지 않으면 안 되고, 직업인 전문인을 양성하는 직업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시점에 있는 것이다(이미경, 2004).

유아교육과는 유아교사 양성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특수목적의 학과로써 전문직업인 양성이란 대학의 역할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유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어 타학과에 비해 진로선택과 취업에 대한 방향성과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08년 통계자료에서도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의 경우 취업률이 정규직 82.7%에 이를 정도로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또한 유아교사 자격증을 제한된 인원만 취득할 수 있는 보육 및 아동관련 학과와는 다르게 유아교육과는 정원에 제한 없이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무시험검정으로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공립유치원을 제외하고는 별도의 임용고시를 치르지 않아도 유아교사로서 유아교육기관에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는 많은 학생들은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진학 당시부터 유아교사직을 직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타학과 학생들에 비해 유아

교육과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아교사직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줄 가능성도 지니고 있다.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적,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유아교사직에 대한 인식, 학력기준, 양성기관 및 기간, 자격부여조건, 자격 명칭 등이 혼재하고 있는 현재의 유아교사 양성제도(조형숙·이경민, 2004), 그리고 높은 취업률과 높은 이직률, 직업 환경의 어려움, 유아교사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공립 기관과 사립 기관의 현저한 근무여건 차이, 공립유아교사 임용에의 어려움, 학과과제의 부담감 등의 현실적인 이유들은 유아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의욕을 감소시키며, 진로 및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진로 및 취업 관련 연구는 그동안 일반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예비교사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진학 동기, 전공만족과 학교적응, 진로 및 취업에 관한 연구(김병찬, 2003; 김홍태·윤지현·최호·이동준·김재근, 200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예비교원국 외, 2002)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비교사의 진학 및 진로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사범대학 학생들, 즉 초·중등학교 교사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유아교사는 초·중등 교사와는 학력, 자격, 교육과정 등이 다른 체제에서 양성되고 있고(임승렬·박은혜·김명순·김희진, 2003),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 집 등 기관의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임용방식과 교사근무 여건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성기관의 형태도 1년제 보육교사 양성기관에서 4년제 대학까지 매우 다양하

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의 경우 진학 배경이나 동기, 졸업 후 진로 선택이 초·중등 예비교사들과는 차별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아교육과는 예비유아교사의 대표적 양성기관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2, 3년제 전문대학에 190여개, 4년제 대학에 70 여개가 설치되어 있으며(교육통계서비스, 2009), 매년 입시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인기 학과 중 하나이다. 또한 4년제가 중심이 되는 여타의 교사 교육 기관과는 달리 2, 3년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가 유아교사의 주 양성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기에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과 계획은 다른 예비교사 양성기관과는 차별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예비유아교사의 진학 및 전공만족에 대한 연구로는 조경자, 이현숙(200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유아교육과 신입생들의 입학배경(고동섭, 2001),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송정원 · 이현정 · 이대균, 2007)로 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진로 및 취업 관련 연구는 윤경선(2009)의 연구 이외에는 연구의 범위가 현직교사의 이직 및 실직 관련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어 가고 있기에(Doyle, 1990; Duffy & Cunningham, 1996) 교사양성기관에서 학습자인 예비교사들의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 양성기관에서의 교육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육의 대상인 학습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교육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박은혜, 2002).

이러한 필요성으로 인해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어떠한 동기와 배경을 가지고 유아교사양성기관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양성기관에서의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졸업 후 어떠한 진로계획을

갖고 있는지, 교사직에 대한 인식이나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기본적인 학습자에 대한 이해는 성공적인 예비유아교사교육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유아교사 양성기관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과정, 진로 및 취업의 문제는 학생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의 발전 측면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대표적 양성기관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배경과 진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대학 진학 과정 및 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 졸업 후 진로 계획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학 동기와 과정, 진학에 대한 만족 및 진로 선택의 성향을 파악하여 우수한 예비유아교사의 확보와 양성을 위한 교육적 결정 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진로 선택 및 취업에 도움을 주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유아교육과 진학 배경 및 동기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만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계획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2, 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표 1> 일반적인 배경

구분		빈도	비율 (%)	구분		빈도	비율 (%)
성별	남	10	1.9	고등학교 계열	인문계	374	71.6
	여	512	98.1		실업계	148	28.4
연령	만17~19세	205	39.3	학년	1학년	160	30.7
	만20~22세	264	50.6		2학년	132	25.3
	만23~25세	40	7.7		3학년	162	31.0
	만26세 이상	13	2.5		4학년	68	13.0
기관실습 경험	있다	219	42.0	대학 구분	2, 3년제	296	56.7
	없다	303	58.0		4년제	226	43.3
가정의 사회 경제적 계층	상	1	0.2	고등학교 성적	상	37	7.1
	중상	56	10.7		중상	143	27.4
	중	339	64.9		중	227	43.5
	중하	106	20.4		중하	103	19.7
	하	20	3.8		하	12	2.3
합계		522	100.0	합계		522	100.0

중인 학생 522명이다. 조사대상의 표집은 질문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협조요청이 가능한 2, 3년제 전문대학 5개, 4년제 대학 4개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배경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질문지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선택을 조사하기 위해 한국 교원단체총연합회 예비교원국(2002), 김홍태·윤지현·최호·이동준과 김재근(2007), 고동섭(2001)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들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에 맞게 제작하였다.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일반적 배경에 대한 문항(8), 대학 진학 선택과정 문항(5), 진학에 대한 만족 문항(3), 졸업 후 진로 문항(10)의 4영역 총 26문항으로 구성하였고, 응답 형식은 질문의 유형에 따라 선택형과 순위형, 5점 척도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작성한 질문지 내용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1인과 박사학위를 소지하거나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현재 2, 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에 출강 중인 5인을 통하여 문항의 문제점과 이해도를 확인하여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았다. 검증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영역에 맞게 질문지를 재구성하고 연구목적에 맞게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으며 연구내용에 적절하지 않는 문항을 삭제하였다. 최종적인 질문지의 내용구성은 다음 <표 2>와 같다.

3. 연구절차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설문 문항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조사 설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2, 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표 2> 유아교육과 학생의 진학 및 진로 질문지 내용구성

영역	내 용	문항수
일반적 배경	성별, 연령, 학년, 기관실습경험 고등학교 계열, 고등학교 성적, 진학배경 사회경제적 계층	8
대학 진학 배경 및 동기	진학에 영향을 끼친 사람 진학동기 진학 당시 희망 직업 희망 직업 결정 시기	5
진학에 대한 만족	진학에 대한 만족 만족 이유, 불만족 이유	3
졸업 후 진로 계획	현재 졸업 후 희망 직업 희망직업을 선택한 이유 유아 교사직에 대한 인식 유아 교사직을 희망하는 이유, 희망하지 않는 이유 유아 교사직 이외의 진로 계획 이유 임용고시 계획 및 준비 여부 임용고시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	10
총 문항 수		26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 좀 더 명확하고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2) 본 조사

본조사는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15일까지 부산시에 소재한 2, 3년제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 9개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5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의 배부와 회수는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학교의 교수 및 출강을 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이루어졌다. 선정된 9개 대학 유아교육과에 총 582부의 질문지가 배부되었고, 53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531부 중 연구목적에 맞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대답한 9부를 제외한 총 522부를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응답한 질문지 중 선택형 문항에 대해서는 각 문항별로 빈도와 백분율을 실시하였고, 5점 평정형의 문항에 대해서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변인을 학년과 대학구분으로 두고 빈도와 백분율 문항에 대해서는 카이검증을, 평정형 문항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각 문항에서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대학구분(2, 3년제/4년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결과는 대학구분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차이검증 결과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대학구분별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은 문항에

대해서는 합쳐진 전체 결과를 제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유아교육과 학생의 진학 및 진로에 대한 결과를 첫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유아교육과 진학 배경 및 동기, 둘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만족, 셋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유아교육과 진학 배경 및 동기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진학하게 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과 진학 경로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유아교육과 진학 경로

구분	빈도	비율(%)
고등학교 졸업 직 후 진학	418	80.1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 후 진학	35	6.7
타대학 재학 중 재진학	34	6.5
타대학 졸업 후 재진학	15	2.9
검정고시 본 후 진학	5	1.0
기타	15	2.9
합계	522	100.0

위의 <표 3>을 살펴보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경로는 ‘고등학교 졸업 직 후 진학’이 418명(8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재수 후 진학’이 35명(6.7%), ‘타대학 재학 중 재진학’ 34명(6.5%), ‘타대학 졸업 후 재진학’ 15명(2.9%), ‘기타’ 15명(2.9%), ‘검정고시 본 후 진학’ 5명(1.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대학에 진학할 당시 고려사항

구분	빈도	비율(%)
성적	109	27.7
학교	35	8.9
학비	11	2.8
자격증	9	2.3
적성	143	36.4
취업	75	19.1
결혼	3	0.8
기타	8	2.0
합계	393	100.0

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취업 후 진학’이라는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표 4>에서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에 진학할 당시의 고려사항에 대해 다중응답 순위형으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적성’이 143명(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성적’이 109명(27.7%), ‘취업’이 75명(19.1%), ‘학교’는 35명(8.9%), ‘학비’는 11명(2.8%), ‘자격증’은 9명(2.3%), ‘기타’는 8명(2.0%), ‘결혼’은 3명(0.8%)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학교와 집의 거리’, ‘종교’, ‘기숙사’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유아교육과 진학을 결정한 시기

구분	빈도	비율(%)
중학교 이전	90	17.2
고교 1학년	55	10.5
고교 2학년	58	11.1
고교 3학년	141	27.0
원서 접수 기간	142	27.2
기타	36	7.0
합계	522	100.0

위의 <표 5>에서 유아교육과 진학을 결정한 시기를 살펴보면 유아교육 ‘원서 접수 기간’이

<표 6> 유아교육과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

구분	빈도	비율(%)
유아 교사	22	4.2
학교 교사	29	5.5
학원 및 과외교사	5	1.0
부모	106	20.3
형제	9	1.7
친구	26	5.0
나 자신	287	55.0
기타	38	7.3
합계	522	100.0

142(2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고교 3학년(27.0%)’, ‘중학교 이전(17.2%)’, ‘고교 2학년(11.1%)’, ‘고교 1학년(10.5%)’, ‘기타(7.0%)’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으로는 ‘타 대학 다니던 중’, ‘타 대학 졸업 후’, ‘고등학교 졸업 후’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위의 <표 6>에서 학생들이 유아교육과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에 대해 알아본 결과, ‘나 자신’이 287(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모’가 106명(20.3%), ‘기타’가 38명(7.3%), ‘학교 교사’ 29명(5.5%), ‘친구’ 26명(5.0%) 등의 순로 나타났다. 기타의 응답으로

는 ‘친척’, ‘유아’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별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동기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아래의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학 동기로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서’라는 응답(64.6%)을 가장 많이 하였다. 대학별로 살펴보자면, 2, 3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서’가 206명(69.6%), ‘취업이 쉽기 때문에’ 29명(9.8%), ‘부모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인해’ 29명(9.8%), ‘기타’ 19명(6.4%), ‘성적에 맞추어서’ 13명(4.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의 응답으로 ‘적성에 맞추어서’, ‘유치원 운영을 위해서’ 등을 답하였다.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의 경우는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서’가 131명(58.0%), ‘성적에 맞추어서’ 37명(16.4%), ‘부모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인해’ 27명(12.0%), ‘기타’ 17명(7.5%), ‘취업이 쉽기 때문에’ 14명(6.2%)의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의 응답으로는 ‘적성에 맞추어서’, ‘아이들이 좋아서’ 등의 응답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별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동기에 대하여 차이는 $\chi^2=24.68(df=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대학별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할 당시 가

<표 7> 유아교육과 진학 동기

구분	유아교육과 진학동기					합계	$\chi^2(df)$
	유아교사가 되고 싶어서	성적에 맞추어서	취업이 쉽기 때문에	부모나 주변 사람의 권유로 인해	기타		
2, 3년제	206 (69.6%)	13 (4.4%)	29 (9.8%)	29 (9.8%)	19 (6.4%)	296 (100%)	
4년제	131 (58.0%)	37 (16.4%)	14 (6.2%)	27 (12.0%)	17 (7.5%)	226 (100%)	24.68*** (4)
합계	337 (64.6%)	50 (9.6%)	43 (8.2%)	56 (10.7%)	36 (6.9%)	522 (100%)	

*** $p<.001$

<표 8> 대학에 진학할 당시 가장 희망했던 직업

구분	대학에 진학할 당시 가장 희망했던 직업							합계	$\chi^2(df)$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 집교사	민간 어린이집 교사	공립 유치원 교사	사립 유치원 교사	교사 외 직업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미결정		
2, 3년제	65 (22.0%)	5 (1.7%)	127 (42.9%)	33 (11.2%)	35 (11.8%)	18 (6.1%)	13 (4.4%)	296 (100%)	
4년제	22 (9.7%)	0 (0.0%)	121 (53.5%)	17 (7.5%)	44 (19.5%)	11 (4.9%)	11 (4.9%)	226 (100%)	25.47*** (6)
합계	87 (16.7%)	5 (1.0%)	248 (47.5%)	50 (9.6%)	79 (15.1%)	29 (5.6%)	24 (4.6%)	522 (100%)	

*** $p < .001$

장 희망했던 직업에 대하여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경로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위의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공립유치원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 1순위로 응답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3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의 경우는 ‘공립 유치원 교사’ 127명(42.9%),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사’ 65명(22.0%), ‘교사의 직업’ 35명(11.8%), ‘사립 유치원 교사’ 33명(11.2%),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18명(6.1%), ‘미결정’ 13명(4.4%)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립유치원 교사’ 121명(53.5%), ‘교사의 직업’ 44명(19.5%),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교사’ 22명(9.7%), ‘사립 유치원 교사’ 17

명(7.5%),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11명(4.9%), ‘미결정’ 11명(4.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학별 대학에 진학할 당시 희망했던 직업에 대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25.47(df=6)$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2.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만족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만족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진학에 대한 만족여부, 진학 만족 이유와 불만족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에 대한 만족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9>

<표 9> 유아교육과 진학에 대한 만족

구분	진학 만족		합계	$\chi^2(df)$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2, 3년제	231 (78.0%)	65 (22.0%)	296 (100%)	
4년제	181 (80.1%)	45 (19.9%)	226 (100%)	0.32 (1)
합계	412 (78.9%)	110 (21.1%)	522 (100%)	

<표 10> 유아교육과 진학에 대한 만족 이유

구분	진학 만족 이유						합계	$\chi^2(df)$
	적성에 맞아서	취업 전망이 좋아서	학과교육 여건이 좋아서	학우들이 마음에 들어서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로서	기타		
2, 3년제	82 (35.5%)	39 (16.9%)	3 (1.3%)	1 (0.4%)	97 (42.0%)	9 (3.9%)	231 (100%)	
4년제	101 (55.8%)	17 (9.4%)	0 (0.0%)	4 (2.2%)	54 (29.8%)	5 (2.8%)	181 (100%)	23.08*** (5)
합계	183 (44.4%)	56 (13.6%)	3 (0.7%)	5 (1.2%)	151 (36.7%)	14 (3.4%)	412 (100%)	

*** $p < .001$

와 같다.

다음의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만족에 대한 응답은 대학별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전체 응답 중 ‘만족한다’가 412명(78.9%), ‘만족하지 않는다’가 110명(21.1%)으로 나타났다.

위의 <표 10>에서는 진학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412명에게 전공 만족 이유를 알아본 결과 전공 만족 이유에 대해서 대학별로 통계적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2, 3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만족한다’의 이유가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로서’ 97명(42.0%), ‘적성에 맞아서’ 82명(35.5%), ‘취업 전망이 좋아서’ 39명(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의 경우는 ‘적성에 맞아서’가 101명(55.8%),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로서’ 54명(29.8%), ‘취업 전망이 좋아서’ 17명(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표 11>에서 진학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110명의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알아본 결

<표 11> 유아교육과 진학에 대한 불만족하는 이유

구분	진학 불만족이유						합계	$\chi^2(df)$
	적성에 맞지 않아서	취업 전망이 좋지 않아서	학과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학우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 아니라서	기타		
2, 3년제	35 (53.9%)	5 (7.7%)	7 (10.8%)	0 (0.0%)	7 (10.8%)	11 (16.9%)	65 (100%)	
4년제	12 (26.7%)	12 (26.7%)	8 (17.9%)	1 (2.2%)	8 (17.8%)	4 (8.9%)	45 (100%)	15.41*** (5)
합계	47 (42.7%)	17 (15.5%)	15 (13.6%)	1 (0.9%)	15 (13.6%)	15 (13.6%)	110 (100%)	

*** $p < .001$

<표 12> 현재 희망하는 졸업 후의 직업

구분	현재 희망하는 졸업 후의 직업							합계	$\chi^2(df)$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교사	민간 어린이집 교사	공립 유치원 교사	사립 유치원 교사	교사 외 직업	편입 또는 대학원진학	미결정		
2, 3년제	65 (22.0%)	5 (1.7%)	100 (33.8%)	61 (20.6%)	34 (11.5%)	13 (4.4%)	18 (6.1%)	296 (100%)	
4년제	30 (13.3%)	1 (0.4%)	94 (41.6%)	35 (15.5%)	30 (13.3%)	21 (9.3%)	15 (6.6%)	226 (100%)	16.10* (6)
합계	95 (18.2%)	6 (1.2%)	194 (37.2%)	96 (18.4%)	64 (12.3%)	34 (6.5%)	33 (6.3%)	522 (100%)	

* $p < .05$

과 대학별 유아교육과 진학에 대한 불만족 이유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2, 3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35명(53.9%), ‘기타’ 11명(16.9%), ‘학과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7명(10.8%),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 아니라서’ 7명(10.8%), ‘취업 전망이 좋지 않아서’ 5명(7.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의 경우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가 12명(26.7%), ‘취업 전망이 좋지 않아서’ 12명(26.7%), ‘학과 교육여건이 좋지 않아서’ 8명(17.9%),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 아니라서’ 8명(17.9%)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3.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희망하는 졸업 후의 직업, 유아교사에 대한 인식, 공립유치원 임용 고시 응시 의향, 임용 고시 응시 여부에 대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위의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학별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재 희망하는 졸업 후의 직업에 대해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chi^2=16.10(df=6)$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3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공립 유치원 교사’ 100명(33.8%),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 교사’ 65명(22.0%), ‘사립 유치원 교사’ 61명(20.6%), ‘교사 외 직업’ 34명(11.5%), ‘미결정’ 18명(6.1%),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13명(4.4%), ‘민간 어린이집 교사’ 5명(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의 경우는 ‘공립유치원 교사’ 94명(41.6%), ‘사립유치원 교사’ 35명(15.5%),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교사’ 30명(13.3%), ‘교사외 직업’ 30명(13.3%),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21명(9.3%), ‘미결정’ 15명(6.6%), ‘민간 어린이집 교사’ 1명(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교사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는 대학별 차이 검증의 결과 ‘다른 직업을 몰라서’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

<표 13> 유아교사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 (N=522)

구 분	2, 3년제(n=296)	4년제(n=226)	t
	M(SD)	M(SD)	
평생 직업으로 안정	3.20(0.97)	2.70(0.93)	5.94***
경제적 대우가 만족	2.32(0.87)	1.98(0.83)	4.49***
사회적 대우가 만족	2.91(0.83)	2.28(0.84)	8.48***
가르치는 일이 적성	3.38(0.88)	3.78(0.91)	-5.04***
다른 직업을 몰라서	2.13(0.95)	2.27(1.03)	-1.63
취업이 쉽기 때문에	2.98(1.00)	2.75(1.04)	2.54*
전공을 살리고 싶어	3.80(0.89)	4.07(0.79)	-3.49***

*p<.05 ***p<.001

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전공을 살리고 싶어’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각각의 점수는 3.80(SD=0.89), 4.07(SD=0.79)이었다. 또한 2, 3년제의 경우 ‘다른 직업을 몰라서’가 평균 2.13(SD=0.95)으로 가장 낮았으며, 4년제의 경우에는 ‘경제적 대우가 만족스러워서’가 평균 1.98(SD=0.8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응시 의향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는 아래의 <표 14>와 같다. <표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응시 의향에 대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chi^2=34.74(df=4)$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2, 3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보통이다’ 111명(37.5%), ‘그렇다’ 92명(31.1%), ‘매우 그렇다’ 44명(14.9%), ‘그렇지 않다’ 36명(12.2%), ‘전혀 그렇지 않다’ 13명(4.4%)의 순으로 나타났고,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매우 그렇다’ 77명(34.1%), ‘그렇다’ 68명(30.1%), ‘보통이다’ 44명(19.5%), ‘그렇지 않다’ 29명(12.8%), ‘전

<표 14> 공립 유치원 임용고시 응시 의향

구분	공립유치원 임용고시 응시 의향					합계	$\chi^2(df)$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 3년제	13 (4.4%)	36 (12.2%)	111 (37.5%)	92 (31.1%)	44 (14.9%)	296 (100%)	
4년제	8 (3.5%)	29 (12.8%)	44 (19.5%)	68 (30.1%)	77 (34.1%)	226 (100%)	34.74*** (4)
합 계	21 (4.0%)	65 (12.5%)	155 (29.7%)	160 (30.7%)	121 (23.2%)	522 (100%)	

***p<.001

<표 15> 임용고시를 치고 싶은 이유

구 분	2, 3년제(<i>n</i> =136)	4년제(<i>n</i> =145)	<i>t</i>	
	<i>M</i> (<i>SD</i>)	<i>M</i> (<i>SD</i>)		
치고 싶은 이유 (<i>N</i> =281)	안정적인 교사직 평생보장	4.42(0.69)	4.39(0.71)	0.31
	사립보다 높은 보수	4.35(0.73)	4.41(0.78)	0.47
	사회에서 인정받는 전문직	4.37(0.64)	4.28(0.79)	0.99
	제대로 된 교육을 실천	3.79(0.70)	3.78(0.85)	0.16
	주위 사람의 추천	2.86(1.10)	3.17(1.15)	2.28*

**p*<.05

혀 그렇지 않다' 8명(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용고시 응시 의향에서 치고 싶은 이유(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경우)와 치고 싶지 않은 이유(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에 대해 그 원인을 알아본 결과 <표 15>와 <표 16>과 같았다.

<표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용고시를 치고 싶은 이유에 대한 대학별 차이 검증의 결과 '주위 사람이 추천'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용고시를 치고 싶은 이유'를 평균 점수로 순위를 살펴본 결과 2,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안정적인 교사직 평생보장'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점수는 평균 4.42(*SD*=0.69), 평균 4.39(*SD*=0.71)이었다. 가장 낮게 나타난 점수로는 2, 3년제와 4년제 모두 '주위 사람의 추천'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각각의 점수는 평균 2.86(*SD*=1.10),

평균 3.17(*SD*=1.1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임용고시 응시 의향에서 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경쟁률이 높아서',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 '공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 '합격에 자신이 없기 때문', '노력에 비해 장점이 적기 때문 모두'에서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고시를 치고 싶지 않은 이유'를 평균 점수로 순위를 살펴본 결과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경쟁률이 높아서'에 대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의 점수는 평균 4.18(*SD*=1.03), 평균 3.92(*SD*=1.14)로 나타났다. 가장 낮게 나타난 점수로는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노력이 비해 장점이 적기 때문'이 나타났으며 각각의 점수는 평균 2.98(*SD*=1.04), 3.03(*SD*=1.1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6> 임용고시를 치고 싶지 않은 이유

구 분	2, 3년제(<i>n</i> =49)	4년제(<i>n</i> =37)	<i>t</i>	
	<i>M</i> (<i>SD</i>)	<i>M</i> (<i>SD</i>)		
치고 싶지 않은 이유 (<i>N</i> =81)	경쟁률이 높아서	4.18(1.03)	3.92(1.14)	1.13
	시간과 돈이 많이 들기 때문	4.02(1.07)	3.59(1.04)	1.85
	공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	3.92(0.91)	3.62(1.11)	1.32
	합격에 자신이 없기 때문	3.59(1.12)	3.46(1.02)	0.57
	노력에 비해 장점이 적기 때문	2.94(0.99)	3.03(1.12)	0.39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학 배경 및 동기와 진로계획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여 우수한 예비유아교사의 확보와 양성을 위한 교육적 결정 과정에 기초자료를 제시하여 예비유아교사의 진로 및 취업지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 경로는 8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직후 진학’을 하였으며, 진학을 결정한 시기는 ‘원서 접수 기간’, ‘고등학교 3학년’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유아교육과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은 ‘학생 자신’이었으며, 다음이 ‘부모’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상당수가 전공 및 학과 선택을 고등학교 3학년 이후에 결정하고 있다는 김선미와 심인선(2006)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시 고려사항에 있어서 ‘적성’, ‘성적’, ‘취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진학 동기에 있어서는 전체 64.6%의 학생들이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진학을 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을 선택한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교사가 되기 위해 대학에 가려고 이전에 계획한 경우는 약 40% 밖에 되지 않는다는 Book과 Freeman(1983)의 연구와 과학교육 계열의 사범대학 진학 결정요인에서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온 연구(김홍태·윤지현·최호·이동준·김재근, 2007; 김영진, 1991), 사범대생들이 사범대학에 진학할 때 교사가 되고자 하는 목적의식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김병찬, 2003; 이학원, 1999)와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선택 동기에 있어 유

아자체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더욱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고 한 연구 결과(고동섭, 2001)와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가 Huberman(1993)이 언급한 ‘능동적 동기’, Kronus(1969)가 언급한 ‘직무 내적인 보상’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이들이 유아교사가 되었을 때 직무 수행에 의욕적일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조경자·이현숙, 2005).

이러한 결과들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장래희망을 고려하기 보다는 일단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등의 외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타학과 학생들(김봉환·김병석·정철영, 2008)과 비교해 볼 때 진학 과정에서부터 다른 요인보다 자신의 적성을 고려한 유아교사직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이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대학 진학 시기부터 일반 사범대학 학생들에 비해 교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유추하게 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둘째, 대부분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진학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78.9%)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적성을 고려하여 진학을 결정하고 입학 당시부터 유아교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비율이 비교적 높다고 보고한 첫 번째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결과이다.

진학에 만족한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알아본 결과, 2, 3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라서’, ‘적성에 맞아서’, ‘취업 전망이 좋아서’ 등의 순으로, 4년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적성에 맞아서’, ‘원래 희망했던 전공이라서’, ‘취업 전망이 좋아서’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자신의 진로를 전공학파로 선정한 학생일 수록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김명주(2009)의 연구, 직업비전과 전공만족도에 대한 김태희, 장경로(2007)의 연구, 그리고 약 90%의 사범대학생들이 적성으로 인해 학과에 대해 만족한다는 김기정(1997)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진학에 불만족 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살펴보면 2, 3년제와 4년제 학생 모두 ‘적성에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하였다. 또한 진학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들에 비해 불만족하는 학생들은 ‘학과 교육여건’, ‘취업전망’에 대해 비교적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에 뜻이 없으면서도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김병찬(2003)의 연구와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유아교육을 전공한 선택하였다는 고동섭(2001)의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업에 목표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 명확한 결정을 못 내려 교직 선택에 대한 갈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 때부터 이러한 학생들을 학과적성검사를 통해 선별하여 자신의 교직동기를 확인하고 탐구해 봄으로써 자신의 뚜렷한 교육 철학을 형성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재 희망하는 졸업 후의 직업을 알아본 결과 가장 희망하는 직업 1순위는 공립유치원 교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직업으로는 사립유치원 교사,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직업을 희망하는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민간 어린이집 교사는 희망 직업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이 설립유형에 따라 교사의 봉급, 근무부담, 신분보장 등 근무여건에 많은 차이가 있기에(주봉관, 2008), 같은 유아교사라 하더라도 근무여건이 타 유아

교사에 비해 좋은 공립유치원 교사를 선호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유아교사직은 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아교사의 보수 격차가 유아교사의 사기 저하 뿐 아니라 유아교사 지망생들의 유아교사직에 대한 회의를 초래하는 실정이라는 주명애(2001)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유아교사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전공을 살리고 싶어서’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르치는 일이 적성이라서’의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 전공 일치도 순위에서 2, 3년제 대학 4위, 4년제 대학 21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이고 있는 유아교육과 졸업생들의 취업실태(교육통계서비스, 2009)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또한 진학에 대한 만족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만족이 전공을 살린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2, 3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 모두 유아교사를 직업으로 희망하는 이유에서 경제적 대우 및 사회적 대우에 대해 전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4년제 대학생들의 경우 경제적 대우 만족으로 인해 유아교사가 되고 싶다는 문항에 대해 매우 낮게 평정하였다. 이는 많은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전공을 살리고 싶고 적성에 맞아 유아교사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직업으로써의 안정성이나 사회, 경제적 대우를 이유로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4년제 학생들의 경우 유아교사가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타직장에서 받는 임금과 비교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경제적 수입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교사가 사회적 대우가 낮은 직업으로 간주된다는 Yong(1995)의 연구를 반영해 주고 있다. 특히 공·사립 교사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초·중등학교와는 달리 공립유치원 교사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립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가 주를 이루고 있는 유아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은 타 교육기관 교사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무환경, 낮은 임금, 기타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들이 교사로서의 신념과 의욕을 약화시킨다는 염지숙(2003)의 주장을 상기시켜 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공립 유치원 교사 임용고시에 대한 응시의향에 있어 50% 이상의 학생들이 응시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대학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2, 3년제 대학의 경우 '보통이다'를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해 4년제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조건 중 하나가 학력인데 반해 유아교사라는 직종에서는 2, 3년제와 4년제 대학간 학력차이가 자격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에(박수연, 2000), 4년제 대학 졸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는 초·중등 교사와 유일하게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립 유치원 교사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과 2008년 졸업인원이 2, 3년제 10,025명, 4년제 2,160명인데 비해 2008년 유치원 임용고시의 모집인원은 전국단위 131명밖에 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모집인원은 최근 몇 년간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에(교육통계서비스, 2009) 현실적으로 공립 유치원 교사로의 진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현실적인 진로계획과 준비가 요구되며, 학교는 이러한 학생들을 격려하고 도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현재 대부분의 유아교육과 학생들은 유아교사가 되기 위해 유아교육과에 진학하였고, 진학 후에도 유아교사가 되고자 하는 진로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아교사직을 선호하고 있으나 근무조건이나 대우 등의 이유로 인해 안정적인 대우를 해 주는 공립유치원 교사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교사의 질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사교육이라기 보다는 교사들의 처우문제와 근무여건 등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아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대중교육의 실시 등이라는 것을(제경숙, 2004) 다시 한 번 시사해 주고 있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교사 양성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후속연구에서는 아동학 관련 및 보육관련 학과, 보육교사교육원 등의 다양한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교사가 되고자 하는 예비유아교사들의 진학 및 진로에 관한 특성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또한 양성기관별로 진로와 취업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연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진학배경과 진로계획에 대한 양적조사를 통해 예비유아교사들의 인식을 전반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초·중등 예비교사들과는 차별되는 예비유아교사들만의 진학과 진로에 대한 특성을

심층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히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기대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 표피적으로 다루어졌던 예비유아교사들의 진학 동기나 졸업 후 진로의 특성들을 개방형 질문이나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되어질 필요성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예비 유아 교사들의 진학 동기와 배경을 조사하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계획을 알아보는 데에 그쳤다. 후속연구에서는 졸업 후 진로 및 유아교사 진출에 대한 실재를 조사하고 졸업 전에 희망했던 직업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직업 선택의 동기와 배경은 어떠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예비교사와는 차별성을 보이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에게 적절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진로 상담 및 취업 준비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고동섭(2001).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통계서비스(2009). [http : //std.kedi.re.kr/index.jsp](http://std.kedi.re.kr/index.jsp).
 김기정(1997). 사범대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 및 취업 전망에 관한 실태조사.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5**, 35-86.
 김명주(2009). 무용전공 대학생의 진로인식과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 **무용학회논문집, 58**, 19-39.
 김민정 · 김봉환(2007). 불안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1)**, 13-25.
 김병찬(2003). 사범대생들의 사범대학 진학동기와 적용과정 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0(1)**, 57-83.
 김봉환 · 김병석 · 정철영(2008). **학교진로상담**. 서

울 : 학지사.
 김선미 · 심인선(2006). 한국과 미국 고등학생의 진로 결정 자율성과 영향요인 비교 분석. **비교교육연구, 16(1)**, 1-19.
 김성경(2003). 대학신입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0(2)**, 215-237.
 김영진(1991). 사립사범대생들의 생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희 · 장경로(2007). 체육계열 전공 대학생들의 전공 및 학과 만족, 그리고 대학 및 직업 위상에 대한 인식이 관련 직업선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69-78.
 김홍태 · 윤지현 · 최호 · 이동준 · 김재근(2007). 예비 생물 교사 및 과학교육 계열 대학생들의 진학 및 진로 선택에 대한 연구.-서울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생물 교육학회지, 35(3)**, 475-494.
 박수연(2000). 유아 교사 자질과 양성 체제에 대한 유아 교사의 인식 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은혜(2002).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유아교사의 지식**. 서울 : 창지사.
 송정원 · 이현정 · 이대균(2007). 2, 3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신입생의 학과 적응과정의 질적 고찰. -신입생이 인식하는 학과의 문화적 특성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385-411.
 염지숙(2003). 유아교사들의 교직경험 : 현장으로부터의 목소리. 한국유아교육학회, 한국유아교육의 정체성확립을 위한 토대. 한국유아교육학회 2003 연차학술대회.
 오현숙(2008). 대학생이 지각하는 취업전만, 영역별 삶의 목표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4)**, 19-37.
 윤경선(2009). 부모-자녀 친밀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유아교육전공 여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2)**, 71-92.
 이미경(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태평양 국제신학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이학원(1999). 사범대학의 교육실습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강원대학교 교육연구**, 9, 121-138.
- 임승렬 · 박은혜 · 김명순 · 김희진(2003). 유치원교사의 자격제도와 임용고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8(1), 271-297.
- 정철영(1994). 개인 대학에서의 효율적인 진로지도 체제와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학회**, 6(1), 29-46.
- 제경숙(2003).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양성의 방향. **교육이론과 실천**, 13(2), 25-40.
- 조경자 · 이현숙(2005). 유아교육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와 유아교사직에 대한 인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89-312.
- 조형숙 · 이경민(2004). 유아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유아교사 양성체제 확립방안. **유아교육학논집**, 8(4), 219-237.
- 주봉관(2008). 유아교사의 사기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명애(2001). 보육교사의 사기저해 요인 분석.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예비교원국, 전국국립사범대학학생연합,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2002). 사범대학생 의식조사 분석 보고서. 서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예비교원국.
- Book, C. L., & Freeman. D. J. (1986). Differences in entry characteristic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 candidat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7(2), 47-51.
- Doyle, W. (1990). 'Themes in teacher education research'. in W. Robert Houston (Ed).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New York : Macmilan Publishing Company. pp.3-24.
- Duffy, T. M., & Cunningham, D. J. (1996). 'Constructivism : implications for the design and delivery of instruction'. *Handbook of Research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pp.170-198.
- Huberman, M. (1993). *The lives of teacher*.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 Kronus, C. L. (1969). Occupational career decision : Temporal patterns and sociological correlat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h.D Dissertation.
- Yong, B. C. S. (1995). Teacher trainees' motives for entering into a teaching career in Brunei Darussalam. *Teaching & Teacher Education*, 11(3), 275-280.

2009년 11월 1일 투고, 2010년 1월 4일 수정
2010년 1월 7일 채택